

제34차 지역사회교육포럼

부모교육으로 길을 찾다

일시 : 2016. 11. 24 (목) 14:00~16:30

장소 : 지역사회교육회관 새이웃 소극장

주최 :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후원 : 교육부
현대자동차(주)

부모교육으로 길을 찾다

올해로 우리협의회가 창립 47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지역사회교육운동의 활성화와 KACE의 발전에 기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교육으로 길을 찾다.’

이번 제34차 지역사회교육포럼의 주제입니다. 줄어들지 않는 각종 사회문제 해법의 근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모를 원망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일수록 부모로서의 자신에 대해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려울 것이요, 부모가 겪은 어려움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대물림된다면 행복 사회의 구현 또한 그만큼 요원할 것입니다.

모처럼 귀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할애하신 시간 이상의 보람 얻어 가실 것을 믿기에 정중히 초대합니다. ‘좋은 부모’ 되는 법, ‘건강한 가정’ 만드는 법에 관해 함께 고민해보는 소중한 시간 삼으시기 바랍니다.

2016. 11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회장 강 전 항
제34차 지역사회교육포럼 준비위원장 전 은 경

일 정

사회 : 박명래 KACE 부모리더십센터 대표

13:30-14:00 등록 • TEA ART

14:00-14:30 개회 및 축사

14:30-14:50 [기조강연] 희망찬 미래, '부모교육'에서 길을 찾다
- 부모교육의 새로운 강조점과 방향: "행복"
문용린 |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14:50-15:00 [영 상] 부모가 부모교육을 말한다

15:00-16:00 [Talk Show] "건강한 가정, 부모교육에 희망이 있다"
• 진행: 김혜준 | (사)함께하는아버지들 대표
• 패널: 공동체의식 기반 부모교육 대중 확대를 위한 제언
| 정미리(가족문화교육연구소 '파밀리언바움'소장)
부모교육 개선방안
| 임관식(前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과열된 자녀교육:사회문화적 해석과 해결방안 모색
| 정태연(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16:00-16:30 질의응답 및 전체토론

16:30 폐 회

차 례

기조강연 희망찬 미래, 부모교육에서 길을 찾다
- 부모교육의 새로운 강조점과 방향: “행복”
문용린 |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p.7

Talk Show

공동체의식 기반 부모교육 대중 확대를 위한 제언
정미리 | 가족문화교육연구소 ‘파밀리엔바움’ 소장

p.14

부모교육 개선방안

임관식 | 前 여성가족부 권익증진 국장

p.19

과열된 자녀교육: 사회문화적 해석과 해결방안 모색

정태연 |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p.23



· 기조강연 ·

희망찬 미래, 부모교육에서 길을 찾다

- 부모교육의 새로운 강조점과 방향: “행복”

문 용 린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1. 부모교육의 궁극적 목표: 행복

부모교육의 핵심은 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옳고 바르게 행사하여, 가정경영과 자녀양육에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돕는 것이다. 그래서 세 가지가 부모교육의 중요 영역이 된다. 첫째는 가정생활 전반에 대한 책임 있는 부모의 역할과 능력에 대한 교육이며, 둘째는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바른 역할과 능력에 대한 교육이고, 셋째는 부모 자신의 삶의 의미와 행복추구에 대한 교육이다. 부모 자신이 건강하고 긍정적인 삶을 유지 할 때에 가정경영과 자녀양육이라는 사명이 충실히 달성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의 세 영역에서 전개된 부모교육은 내용 면에서 주로 기능적인 것에 치우쳐 온 것이 사실이다. 가정을 어떻게 경제적으로 잘 꾸려(재테크) 갈 것인가? 자녀를 어떻게 공부 잘하게(학습), 문제없게(학교폭력) 키울 것인가? 또는 여가시간을 어떻게 잘 선용(봉사와 취미)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기능적 관심의 부모교육에 대해서 긍정심리학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부모교육은 좀 더 적극적으로 행복이라는 목표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행복이라는 더 높은 차원의 목표를 인식하면서, 재테크, 학습과 공부, 취미와 봉사 등의 수단이 추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부모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자녀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 하나하나의 삶을 행복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철학과 책임감과 실천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라는 것이다. 부모 자신도 행복해야 하고, 자녀들도 행복해야 하며, 그러자니 가정생활도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부모교육은 기왕의 여러 기능적 노력에 부가해서, 가족 구성원 모두를 행복하게 해 주기 위한 노력을 추가해 넣어야 할 것이다.

2. 행복은 습관이다.

'어릴 적 버릇이 여든 간다.'는 속담이 있다. 어렸을 때 좋은 습관을 갖게 만들라는 조상들의 부모교육 상의 양육지혜다. 아이를 너무 귀여워만 하면, 버릇이 나빠지고, 또 너무 엄격하게만 기르면, 잔정이 없어지니, 그 균형점에서 좋은 습관이 형성되도록 가르치라는 교육의 한 원리인 셈이다. 어릴 적의 좋은 습관 형성의 중요성은 식사습관에서, 인간관계에서, 예절습득에서, 학습태도에서, 신체건강 관리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강조되어 왔다.

행복도 그렇다. 행복도 습관이기 때문이다. 어릴 적부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습관들인 사람이 어른이 되어서도 행복한 습관을 유지할 수 있다. 앞에서 말한 속담을 이렇게 바꾸어 볼 수 있다. '어릴 적 행복이 여든 간다.' 행복도 습관이기 때문에, 어릴 적에 행복했던 사람은 그 습관대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지속시키고자 노력하며, 그 결과로 행복한 삶을 유지하게 된다.

어릴 적 식사습관이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지 않는가? 어려서부터 짠 음식에 습관들인 사람이 결국 커서도 그렇게 되고, 그 결과로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말이다. 어릴 적에 익힌 식사습관을 바꾸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러니 어릴 적부터 좋은 식사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행복도 마찬가지다. 잘못된 습관이 행복한 삶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행복에 도움이 되는 생활습관을 갖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어려서부터 짜증과 불평에 습관들인 사람은 커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습관은 여간해서는 잘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신도 즐겁지 않고, 그 버릇에 희생을 당하는 주변 사람들의 삶도 물론 행복하지 않게 된다. 사람을 즐겁고 편안하지 않게 하는 무거운 안개와 같은 분위기가 그 자신을 에워싸고 있기 때문이다.

행복을 방해하는 버릇을 고치는 것, 결코 쉽지 않다. 식사습관을 바꾸는 것조차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은가? 행복하고자하나, 그간에 익힌 습관이 이를 방해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린 시절의 어떤 습관이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중요한가?

제일 흔한 것이 짜증, 불평, 불만의 습관이다. 이른바 짜증 모드의 어린이가 있다. 예를 들어 보자. 학교에 다녀와서, 습관처럼 '아, 짜증나!'로 말문을 떼는 어린이가 있다. 그는 스스로가 행복하지 않음을 표현하는 것이며, 아울러 그 말을 듣는 부모도 결코 편안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다. 이 아이의 이런 짜증의 태도는 방심하면 습관으로 굳어진다.

그 다음으로 흔한 것이 무기력, 무관심, 무동기의 습관이다. 아주 소극적이고, 피동적이며, 자발성이 매우 떨어지는 아이다. 그러니 스스로 관심을 갖고 빠져드는 일이 매우 드물며, 의욕과 호기심이 낮으며, 희망과 기대하는 미래의 꿈도 별로 없다. 이런 무기력의 습관은 행복한 경험 자체를 극소화 시킨다. 즉 행복한 감정의 체험을 제한시킨다.

사실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행복감은 성취경험을 통해서 가장 잘 느껴진다. 즉, 아이들이 경험하는 짜릿한 행복감은 자발성의 발휘를 통해서 얻은 성취에서 생긴다. 돌 가까이 되어서, 아이가 첫걸음을 할 때, 둘러싼 모든 가족의 환호가 아이들이 첫 번째로 경험하는 황홀한 행복감일 것이다. 자발적 성취가 그래서 중요하

다. 무기력한 아이는 자발성이 낮으며, 그래서 성취할 기회가 적고, 따라서 행복감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다. 행복습관의 형성 기회 자체가 제한되는 것이다.

그럼 짜증의 습관과 무기력의 습관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원리는 하나다. 짜증과 무기력이라는 부정적 정서(否定的 情緒)를 수용(受容)과 의욕(意慾)의 긍정적 정서 상태로 전환시켜야 하는 것이다. 짜증을 부릴 때, 공감하고, 이해해 주면서 주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도록 다독여 주어야 한다. 그리고 무기력을 극복하기 위해 희망과 기대 그리고 호기심을 불러 일으켜서, 의욕이 생기도록 도와야 한다. 무기력 상태로는 행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의 내면에 잠자고 있는 미래에 대한 열정을 끄집어 내주어야 한다. 이런 일을 부모들이 할 수 있도록 행복을 습관들이게 하는 부모교육이 중요하다.

3. 행복능력은 능력이다: 행복역량 키우기

심리학자인 셸리 테일러(Shelley Taylor)는 유방암 선고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울증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는 환자들의 대다수가 우울증에 걸려 고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그러한 환자들 중 일부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오히려 병에 걸리기 이전보다 삶에 대한 의지가 더욱 고취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저는 유방암 환자예요. 하지만 후유증을 이겨낼 수 있어요. 저에게는 힘이 되어 주는 가족이 있거든요.”

이 연구를 바탕으로 그는 사람에 따라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극복하는 심리적 능력에 차이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어떤 상황이든 개인의 성향에 따라 삶의 영위하는 태도와 희망과 절망의 태도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불행을 행복으로 전환시키는 능력의 존재를 발견한 것이다. 이른바 행복능력의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긍정심리학에서 다루는 내용은 즐거움과 행복을 주로 다룬다. 또한 친절, 호기

심, 대인관계, 개개인의 긍정적 특질과 성향뿐만 아니라 가치, 흥미, 재주, 능력 등을 연구한다. 또한 결혼, 가족, 교육, 종교, 사회제도도 연구한다. 즉, 이 모든 것이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긍정심리학자들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지 연구한다. 그들은 행복능력의 개인차에 관심을 갖는다. 동일한 여건에서도 사람들은 왜 서로 다르게 행복을 느끼는가?

<오체불만족>의 저자 오토다케 히로타는 팔과 다리가 없는 장애인이다. 하지만 그는 몸통만으로 달리기는 물론 수영, 야구 등을 즐기며 정상인보다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있다. 팔다리가 없다 보니 식사를 할 때도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 포크로 식사를 해야 하며, 글을 쓸 때도 어깨와 뺨 사이에 연필을 끼워야 한다. 그런데 일상생활 자체가 힘든 상황에서도 히로타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비관을 한 적이 없다. 그가 이렇게 밝은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가진 장애는 단지 신체적 특징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마인드가 그에게 장애를 극복하는 힘이 되었고, 정상인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된 것이다. 그는 행복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이다.

이렇듯 행복능력으로서의 긍정적인 마인드가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사례는 비단 몇몇의 특수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KBS TV의 한 프로그램에서 긍정적인 마인드가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사례를 소개한 적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삶을 포기할 것 같던 사람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후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보여준다.

양정옥씨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다. 그녀의 인생은 비관과 어둠뿐이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에 비관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일생을 보냈다. 하지만 그녀는 “이대로 인생을 허무하게 살 수는 없다”라고 생각한 후 이후 자신의 인생에 ‘긍정’이라는 말을 삽입시켰다. 그 이후 그녀의 삶은 180도 바뀌었다. 이전까지 자책하던 모습은 없어졌으며 현

재는 플라멩코 댄서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이분 또한 행복능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젊은 시절 버거씨 병으로 한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던 박영길씨는 자신의 장애를 극복한 후 아마추어 복서와 마라톤 풀코스 완주를 총 3회나 이루었을 정도로 활기찬 삶을 살고 있다. 그는 “장애를 얻은 후 ‘나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사회의 낙오자라는 부정적인 생각 밖에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를 응원해주고, 지켜봐주는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힘을 낼 수 있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지우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자 나의 인생은 바뀌었다.”라고 말한다. 행복능력이 생긴 것이다.

사실 오토다케 히로타나 양정옥씨, 박영길씨가 경제적으로 성공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지금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근간이 된 것은 다름 아닌 행복능력으로서의 긍정적 마인드를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행복한 삶은 자신의 생활이나 환경, 신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 ‘나는 행복하다’라는 행복능력으로서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는 순간 새로운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몇 년 전 MBC TV에서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에서 아마존 유역에 살고 있는 조에부족을 소개한 적이 있다. 브라질 정부가 보호하는 원시부족 중 하나가 바로 ‘조에족’이다. 조에족 사회엔 싸움이 없다. 그 이유는 조에족 만의 독특한 풍습 때문이다. 만약 한 사람이 화가 나서 말도 하지 않고 있다면 부족 사람들은 모두 그 사람에게 몰려가 웃을 때까지 간지럼을 태운다. 그러면 화가 난 사람은 언제 화가 났냐는 듯이 웃음을 머금는다. 이 부족은 비록 원시사회이지만, 행복능력만큼은 우리 문명사회보다 높다.

긍정적 마인드를 유지하고 발생시키는 행복능력을 조에부족은 사회문화 속에 갖추고 있는 것이다. 웃음은 대표적인 행복능력이다. 긍정적인 마음과 정서의 대표

주자다. 웃음이란 부정적인 요소가 아닌 긍정적인 마음과 정서의 발생장치이기 때문이다.

조예족이 화가 난 사람에게 웃음을 유발하는 행동은 ‘웃음’이라는 긍정적 요소를 최대한 활용하는 그들만의 삶의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이하는 긍정적 요소는 매우 많다. 건강, 돈, 가정, 성취, 목표, 배려 등등. 하지만 이러한 요소들은 사람의 관점에 따라 긍정적 요소가 될 수도 있지만 부정적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긍정적 요소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긍정적 마인드가 필요한데, 이를 행복역량이라고 부를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의 행복능력을 키우는 일이 중요한데, 유, 초, 중, 고, 대학의 긴 교육과정을 통해서 행복역량을 키우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교육은 행복을 가르치기에는 너무 출세와 성공과 돈 버는 능력을 키우는 쪽으로 빗나가 있다. 결국 부모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각자 자기 자녀들이 행복습관을 기르고 연습하도록 부모들이 나서야 한다. 그래서 행복 중심의 부모교육이 중요해지는 것이다. 바로 행복역량을 키우는 부모교육이 중요해지는 이유다.

공동체의식 기반 부모교육 대중 확대를 위한 제언

정미리 | 가족문화교육연구소 '파밀리엔바움' 소장

I. 한국가족문화의 특성을 고려한 공동체의식 기반 부모교육 대중 확대

: 부모교육을 넘어 가족문화교육운동으로

한국인의 가치관이나 의식구조를 다루게 될 때 누구나 서슴없이 가장 먼저 드는 것이 가족주의적 특성이다. 그런데 이 가족중심적 사회에서 가족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한 나라의 사회나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족은 매우 중요한 대상이 된다. 사회의 법률, 도덕, 윤리, 규범, 행동 양식 등 거의 모든 생활양식이 이 가족의 생활양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을 대단히 중시하는 한국인은 사회를 거대한 하나의 가족으로 의식하고 가족생활의 행동양식을 사회생활로 확대 연장시키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회구조의 변천과 더불어 문화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문화는 그것을 지탱하는 사회구조 자체의 변동, 사회구성원의 교체, 다른 문화와의 접촉 등으로 인하여 계속 변화하여 가며, 문화의 변화에는 물질문화, 규범문화, 가치문화의 세 측면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생활수단을 제공하는 물질문화는 실리적이고, 이념성이 적은 성격의 문화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더불어 변화가 용이하

다. 그러나 행위의 준칙이나 절차를 제공하는 규범문화는 집단 내의 인간관계나 세력관계의 변화를 뜻하므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기 쉽다. 따라서 오랜 기간의 타협과 조정을 거친 후 완만하게 변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행동의 의미와 목표를 제공하여 주는 가치문화는 가장 변화가 어려운 문화이다. 이 가치문화는 사회질서의 핵심이 되고 규범체계를 통일하는 원리이므로 이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제재가 동원된다. 이러한 문화 요소간의 변화속도의 차이는 문화지체의 요인이 된다. 우리사회의 모든 문화의 모체라고 볼 수 있는 가족문화 역시 이 세 종류의 문화 요소간의 변화속도의 차이로 인하여 **심각한 가족문화지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질문화의 변화속도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규범문화와 가치문화의 좀 더 빠른 변화를 유도하고, 빠른 변화속도로 인한 휘청거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조치가 사회적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 시대에 가족들이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개별 가족이 혼자 힘만으로 대응하기 힘든 점들이 많다. 그러므로 사회는 지역사회 내에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사회교육을 통해 가족 구성원들에게 적합한 모델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사회가 핵가족화 되면서 세대간의 격차가 커져서 가족 간의 통합이나 협력이 어렵고 개별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보다 **공동체적인 삶을 지향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세대 간의 통합**을 꾀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핵가족으로 살면서도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인위적인 대가족제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 즉, 지역사회 내의 주민들이 ‘큰집’, 혹은 ‘우리들의 집’ 으로 여길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의 사회교육기관 중의 하나인 부모교육기관의 변천사를 보면, 20세기 초에는 ‘어머니 학교(Mütterschule)’ 라는 이름으로 어머니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시킴으로써 건강한 가정생활을 장려했었고, 70년대부터는 ‘가족교육기관(Familienbildungsstätte)’ 이라는 명칭아래 가족 구성원 전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독일에서는 가족문화의 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이 있어서 많은 사회문제를 예방하는 데에 일조를 하고 있다.

종족이나 문화, 가치관 등이 서로 다른 사회구성원들에게 새로운 가치관, 사회적 규범, 국가의식 등을 심어주어야 했던 미국은 사회개혁의 중요한 수단으로 유아교육 및 부모교육을 정책적으로 강화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오로지 전문가에 의해서만 진행되는 사회활동은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들고 효과는 적다는 것을 확인하고, 캐나다의 퀘벡에서 진행된 “공동체화(communautarisation)” 정책은 민중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역동화시키려 하고, 가정교육이 교육적 계획의 근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목표를 가졌다.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부모교육(가족문화교육)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가족문화의 문제들의 원인을 분석하여 우리 민족정서에 잘 맞으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가족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프로그램의 실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가족문화교육 프로그램은 가족들의 휴식과 긴장해소를 위한 여가성을 우선적인 특성으로서 가져야 할 것이고, 새로운 행동규범이나 가치관을 확립시키기 위한 교육성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 특히 한국인의 행동규범은 혈연, 지연 등의 귀속성으로 제약되는 귀속주의적이기 때문에, 소집단적이고 국지적인 관습이나 도덕은 준수되지만, 보다 넓은 지역이나 전국적 규모에서 통용되는 법이나 규범은 잘 준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물질문화의 갑작스런 발달로 인하여 가치관이 흔들리며, ‘물질만능주의’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한국인들에게는 교육적 특성을 가진 문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각 가정이 어떤 가족주기에 속하느냐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고, 이 사회의 소외계층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II. 한국가족문화교육 대중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

1. 대상

독일에서는 어머니교육(Mütterbildung)에서 가족교육(Familienbildung)으로 바뀌면서 남자들과 자녀들을 포함한 모든 가족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졌고, 명칭에 관한 토론도 거듭되었다. 그 결과, 인간발달에 중점을 둔 성인교육(Erwachsenenbildung), 자녀교육자로서의 부모교육(Elternbildung), 전통적인 독일 아동사회교육학(Sozialpädagogik)을 포함하고, 가정 전체에 중점을 둔 가족교육(Familienbildung)이라는 명칭이 사회적 동의를 얻기에 이르렀다. 시대적인 발전을 유도했던 요인들은 근본적으로 사회 자체의 변모에서 생겨난 것이다.

이러한 변화과정은 ‘가족공동체’의 재조성이 필요한 우리 사회에 좋은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생애주기별 가족공동체’가 그 대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대상은 ‘따로 혹은 함께’가 가능하며, 취약가정은 “찾아가는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게 함으로써 대상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지리적 접근성

독일에서는 국가, 교회, 사회복지기관이 힘을 합하여 ‘가족교육기관’을 재정적으로 여유 있게 운영하며, 국민들의 ‘가정생활교육’ 혹은 ‘가족문화교육’을 사회교육차원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기관을 따로 설립하는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 지역사회에는 이미 이런 시설을 갖춘 시설들이 있다.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학교의 유휴시설을 이용하거나, 아파트 단지 내의 노인정, 산후조리원, 유아교육기관, 주민자치센터, 각종 평생학습기관 등은 각각의 특성에 따른 독특한 프로그램의 실천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지원 체계

프로그램을 통하여 인지적으로 혹은 수공적으로 배우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타인들과의 관계를 연습하고, 자기 스스로 사회화의 과정에 따르는 것이 중

요하다. 독일에서의 프로그램 제공은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점차적으로 가정생활 준비, 가정과 사회, 가정과 교육, 가정과 여가, 가정과 건강, 가정과 가사의 6개 부문으로 구조화되었다. 이러한 구조화 과정은 프로그램의 편향 현상을 막아서 프로그램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

프로그램의 지원은 그 대상이나 장소, 시간에 따라, 그리고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그 체계를 달리 해야 하며, 프로그램의 수혜자를 능동적인 존재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서구사회의 초기 유치원들이 유아들과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부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건립되었다는 것은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능동적인 양육자로 키우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다. 능동적 존재로 향상시킨다는 의미는 그들 중에서 지도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80년대에 독일에서 등장한 ‘어머니 센터’(Mütterzentren)는 저소득계층의 여성들이 미용, 재봉, 신체 가꾸기, 아이보기, 충고, 수업, 교육 등의 서비스를 서로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기관은 60년대의 사회정치적 대운동의 연장 속에서 탄생한, 공익의 목적을 가진 ‘시민주도’(Bürgerinitiativen)운동과 ‘자조그룹’(Selbsthilfegruppen)운동의 도구로서 탄생했다.

4. 매체 활용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도 프로그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미로, 혹은 자발성이 결여된 부모들을 감각화시키는 방안으로 포털 사이트 제작, 전문 TV 채널, 가정용 육아 매뉴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모 편지” 등의 방법도 매우 유용할 것이다.

부모교육 개선방향안

임관식 | 前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 정부의 부모교육

-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과 건강한 가정을 위한 가족가치 확산을 위해 마련(2016.3)
- 추진방향 :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 강화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시행
 - 결혼 전 : 중.고(교육과정), 대학(교양과목), 군장병(부대별 교육)
 - 결혼 후 : 임신.출산(산부인과), 영유아기(보육료 신청),
학령기(입학설명회, 학부모상담주간)
 - 중점 추진 : 취약가정 중점 지원, 부모교육 자발적인 참여 유도
- 주요 추진사항 :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콘텐츠개발, 부모교육 전문가 관리, 찾아가는 부모교육, 부모교육 사회적 공감대 확산
- 시행기관 : 건강가정지원센터(152개소), 육아종합지원센터(91개소), 전국학부모지원센터(92개소)
 - ※ 건가센터 : 가족교육, 생애주기별 가족생활교육, 아버지교육, 가족성장 아카데미(가족 진단, 부부관계 향상, 부모 코칭)

- 군 장병 대상 예비 부모교육 실시
(국방일보 활용, 국방TV ‘명강 특강’제작방영)
- 대학에 부모교육 교양과목 개설 권장, 부모교육주간 설정(5월) 및
홍보 리플렛 제작 배포(120만부) 및 홍보영상 배포(6월)

□ 대한민국 부모학교(좋은 부모, 행복한 아이)

- 2016. 8월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문화센터 22개소에서 실시
 - 1일 특강(8개 강좌)
 - 4주 프로그램(부모됨의 의미와 준비, 부모로서의 나 이해하기,
우리아이 발달특성과 중요성, 우리아이 발달에 따른 부모역할 연습)

□ “좋은 부모되기” 부모교육 정보 제공(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육아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당신은 어떤 부모
입니까?”라는 영상물과 안내리플렛 제공
 -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신청시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함

□ 부모 교육 시행을 저해하는 요소

- 교육 자체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대충은 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
나도 모른다).
- 교육범위가 하도 넓어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워야(해야) 하는지, 또 배워도 잘
사용이 될지 의문이다.

- 교육 받을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잘 가르치는 곳도 없고, 모른다.
- 생활에 바빠 그런데 신경 쓸 겨를이 없고, 비생산적이라고 본다.
- 가정생활이나 양육은 대충 하면 되는 것으로 본다.
- 핵가족화, 개인주의 팽배 등으로 이웃간, 친지간에 관심이 없고 간섭도 할 수 없는 사회분위기이다.
- 결국은 교육을 받는 부모가 바뀌어야 하는데, 변할 용기와 자신이 없다.
- 언론에서도 관심이 적고, 상업적 분야로 발전하지 않았다.

□ 부모 교육 개선 방안

- 삶의 목표가 변경되어야 : 물질만능에서 삶의 만족(행복의 조건이 가족 구성원의 행복과 화합)으로,
- 필요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공고히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행.재정적 지원 강화
- 장시간 근무를 해소하는 일.가정 양립으로 부모로서의 역할 강화
 - 아빠의 부모 양육 계기 확대, 아버지의 부모교육 참여 활성화
- 언론의 참여확대, 홍보 강화를 통해 부모교육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 특수 대상자 중심으로 우선은 좀 강제적으로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자발적인 참여 확대를 통해 사회적 실천적 운동으로 전개
-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사례별 대처방안 등을 재미있게 포함하며, 자발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동기부양이 가능한 교육운영
- 공적 교육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사적인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장

하고 활성화하는 방안 검토 시행

- 자녀 양육의 일방적 부모교육에서, 바람직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실천하는 내용으로도 확대 필요
 - 부모교육과 병행하여, 고등학교(수능 이후) 또는 대학생(입학생 대상 설명회 등) 대상 자녀교육을 개발하여 쌍방향의 매칭교육 검토
 - 고령사회에 따라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포함 필요

과열된 자녀교육: 사회문화적 해석과 해결방향 모색

정태연 |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우리 사회는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 지금까지 짧은 기간에 여러 측면에서 많은 발전과 성장을 이룩해 왔다. 경제는 아시아 국가의 모델이 될 정도로 성장했고, 정치적으로도 독재정부를 극복하고 민주정부를 수립했다. 또한,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투명성이 높아짐으로써 부정부패도 줄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학교 교육을 최우선으로 꼽는다. 전통적인 봉건적 사회에서 서구문명의 유입을 통한 근대사회로의 탈바꿈이 교육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학부모들의 과도한 교육열은 여러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가령, 지나친 사교육으로 인한 공교육의 붕괴와 부담이 되는 사교육비, 과도한 학습량과 성적에 대한 집착이 가져오는 학생들의 심리적 문제, 과도한 경쟁과 학교서열로 인한 위화감의 조성 등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부모교육을 통해 어떻게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지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겠다.

학부모의 과도한 교육열

조선시대는 선비가 정치를 한 사회이다. 선비는 학식이 있고 행동과 예절이 바

르며 의리와 원칙을 지키고 관직과 재물을 탐내지 않는 사람이다. 즉, 선비는 학식과 함께 도덕성을 겸비한 사람이다. 선비에 이와 같은 의미가 부여된 것은 이때의 공부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다. 이 시기의 공부란 곧 앞에 근거한 실천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우주의 근본 이치를 깨닫고, 그 이치에 따라 자신에게 부여된 본분을 수행함으로써, 자연과 자신의 조화와 합일을 이루는 것이 공부의 최종목표이다. 즉 전통사회에서의 공부론은 수양론이다.

이처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수양도 많이 했기 때문에, 결국 학력과 도덕성은 병행한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이 정치를 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고 잘하는 사람일수록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즉, 공부와 지위 역시 병행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결국,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얻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사람으로 인식되었다. 말하자면, 공부는 개인적으로 모든 것을 가져다주는 최고의 도구였던 셈이다.

반면에, 공부를 못한 사람은 지위도 낮고 도덕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결국 사회적 지위가 낮으면 도덕적이지도 않다는 논리를 발전시켰다. 이러한 생각이 오늘날까지 이어져왔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위가 낮고 권력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근간에는 이와 같은 인식이 숨어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우리 사회는 명문대를 중심으로 학연을 매우 중시함으로써, 학연이 곧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요인들은 대부분의 학부모들로 하여금 자신의 자녀들을 어떻게든 명문대에 보내고자 노력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또한, 우리 사회는 학력, 출신학교, 직업 등으로 사람들을 서열화한다. 또한, 가치의 획일성이 강해 사회적 지위나 권력 혹은 경제수준 이외의 요인들이 사람을 판단하거나 삶의 의미를 정의하는데 그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말하자면, 공부 못하고 위에서 언급한 측면에서의 성취를 이루지 못한 사람은 거의 실패자로 낙인찍힌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적자생존을 지향하는 성취압력에 더 열을 올리는 것이다. 특히, 교육수준이 높고 생활수준이 높은 부모일수록 물질주의적 가치지향과 자녀에 대한 성취압력이 더 컸다.

부모교육을 통한 개선 방안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교육수준과 도덕성은 관련이 없을 수 있다. 학교교육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개인의 능력을 함양하여 자신의 삶의 목표를 실현함으로써 개인적 행복을 증대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의 공동선에 기여할 수 있는 도덕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다. 이때 우리의 교육은 현실적으로 후자보다는 전자에 훨씬 더 많이 치중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교육수준과 도덕성은 큰 상관이 없을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지위가 높다고 해서 그것이 도덕성을 담보하는 것도 아닐 수 있다. 따라서 학력과 도덕성에 대한 허상을 깰 필요가 있다.

또한, 학벌이나 학연이 과거만큼 사회적 지위나 성취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기업 장면에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여러 공조직에서도 그 투명성이 증가하면서, 출신학교가 사회적 성공의 보증수표가 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이 함의하는 바는 자신에게 맞는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외형적인 조건만 갖추기보다는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경력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은 많이 있을 수 있다.


획일적인 가치나 목표로 자녀를 반강제적으로 학업으로 내몰지 않으려면 삶이 가지는 가치의 다양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가 가지는 삶의 기준은 너무 세속적이고 감각적인 동시에 단순하거나 소수에 불과해서, 그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람은 모두 열등하거나 실패한 사람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삶의 가치는 매우 다양한 차원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 스스로 이와 같은 획일적 사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특히, 경제수준이나 사회적 지위가 삶의 가치를 모두 말해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포함해서 자녀의 삶을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모든 사람이 공부를 통해 행복하거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쟁에서 이김으로써 남보다 우월하다고 느끼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부모 스스로 자신의 삶에서 행복과 의미를 발견하고자 노력할 때,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역대 지역사회교육포럼 주제

<p>제1차 (1983) : 사회교육, 미래사회의 열쇠 제2차 (1984) : 삶의 질과 사회교육 제3차 (1985) : 여가와 사회교육 제4차 (1986) : 매스미디어와 사회교육 제5차 (1987) : 시민의식과 사회교육 제6차 (1988) : 좋은 학교 만들기 제7차 (1989) : 교육자치와 지역사회교육운동 제8차 (1990) : 청소년을 위한 부모교육 제9차 (1991) : 지역사회교육운동과 국가발전 제10차 (1992) : 소외극복을 위한 사회교육 제11차 (1993) : 21세기를 준비하는 부모교육 제12차 (1994) : 자원봉사 ; 성숙한 사회로 가는 길 제13차 (1995) : 지역문화와 사회교육 제14차 (1996) : 교육개혁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 제15차 (1997) : 학교폭력 - 실태, 대책, 실천방향 제16차 (1998) : 교육공동체 형성과 사회교육 제17차 (1999) : 지역사회교육운동 30년 - 회고와 전망</p>	사회 교육 심포 지엄
<p>제18차 (2000) : 21세기 교육패러다임의 전환 - 가르치는 사회에서 생각하며 배우는 사회로 제19차 (2001) : 지역주민자치와 성인학습동아리 제20차 (2002) : 평생학습시대 지역사회교육 패러다임의 전환논리와 과제</p>	평생 교육 심포 지엄
<p>제21차 (2003) : 지역사회통합과 평생교육 제22차 (2004) : 지역경쟁력 강화와 지역사회교육 제23차 (2005) : 좋은 시민만들기와 리더십 제24차 (2006) : 저출산시대-가족의 재발견 제25차 (2007) : 평생학습시대 - GO와 NGO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 제26차 (2008) : 학부모의 리더십이 학교를 바꾼다. 제27차 (2009) : 건강한 공동체를 향한 시민리더십 제28차 (2010) : 한국사회 미래비전과 시민리더십 제29차 (2011) : 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의 성과와 방향 제30차 (2012) : 인간문양의 근원을 찾아서 제31차 (2013) : 우리말의 위기와 희망 제32차 (2014) : 지역사회교육 오래된 생각, 새로운 의미 제33차 (2015) : 아산이 남긴 지역사회교육운동</p>	지역 사회 교육 포럼

[부록]


 KACE 전국협의회 주소록

구분	협의회 (설립일)	전화/팩스번호	주소	E-mail
	중 앙 1969. 1. 24	02-424-8377 F. 02-424-8378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4길 5-29 (방이동), 지역사회교육회관 5층 (05544)	kace @kace.or.kr
서 예 권	서울1지구 1990. 2. 5	02-732-5560 F. 02-324-7322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 30-8 (서교동), 2층 (04042)	kaceseoul @kace.or.kr
	서울2지구 1985. 9. 10	02-2606-0042 F.02-2606-0175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오목로 174 주안팸리시아파트 201호 (08020)	kacessn @naver.com
경 기 도	인 천 1983. 8. 11	032-429-6250 F.032-438-1556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743 (구월동), 유제빌딩 4층 (21571)	icem1983 @kace.or.kr
	고 양 1999. 7. 13	031-905-8377 F.031-905-837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33 (장항동), 현대타운 빌 804호 (10403)	koyang77 @hanmail.net
	구 리 2007. 7. 18	031-567-8377 F.031-565-8377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 74 (수택동), 구리행정복지센터 6층 (11940)	kaceguri @kace.or.kr
	남양주 2008. 11. 4	031-567-8228 F.031-567-8338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22 (지금동), 남양주시 제2청사 3층 (12249)	kacenyj @hanmail.net
	부 천 1999. 6. 1	032-614-8366 F.032-614-8365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424번길 20 (심곡동), 2층 (14640)	kacebc @kace.or.kr
	성 남 1999. 5. 27	031-707-8377 F.031-707-841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방아로 40 (이매동), 2층 (13569)	ahnhc99 @hanmail.net
	수 원 1985. 8. 31	031-224-4672 F.031-224-467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53 (신평동), 신진프라자 201호 (16252)	scem85 @kace.or.kr
	시 흥 2004. 2. 20	031-312-0966 F.031-312-0967	경기도 시흥시 호현로 42-6 (대아동) (14909)	shcem2004 @kace.or.kr
	안 산 2004. 5. 3	031-417-4453 F.031-418-448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102 (고잔동), 대우빌딩 4층 402호 (15461)	aj4452 @kace.or.kr
	안양·과천 1999. 7. 14	031-385-9841 F.031-385-984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320번길 4(관양동),한일빌딩5층 (13945)	anyangos @hanmail.net
	용 인 2004. 5. 25	031-275-1785 F.031-360-6528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186-2 상생프라자 A동 502호 (16876)	yongincem @kace.or.kr
	의정부 2000. 5. 10	031-879-0150 F.031-855-2278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195 (의정부동), 경민빌딩 5층 (11653)	kaceujb @nate.com
	화 성 2011. 5. 26	031-357-1451 F.031-357-1453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화성로 1620 명진빌딩 4층 (18284)	hwakace @kace.or.kr

구분	협의회 (설립일)	전화/팩스번호	주소	E-mail
세종권역	대전 1989. 9. 21	042-489-8177 F.042-472-8177	대전시 서구 갈마로 34 5층 (35277)	djcem @hanmail.net
	서산 1982. 10. 15	041-662-2727 F.041-666-2723	충남 서산시 시장6로 35, 2층 (31981)	seosan71 @kace.or.kr
	천안 2004. 4. 29	041-578-4448 F.041-578-4447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802 (신부 동), 흥익문화센터 2층 (31067)	chbumosarang @hanmail.net
	청주 1985. 3. 23	043-253-4494 F.043-253-4495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운로 37번길 18 청남어린이도서관 내 2층 (28712)	cjcem @kace.or.kr
강원권역	강릉 1991. 12. 23	033-646-3385 F.033-646-3386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141 (옥천동), 현대자동차빌딩 4층 (25552)	krcem98 @kace.or.kr
	원주 1991. 12. 23	033-732-3525 F.033-732-3565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500 (단구동), 프리미엄아울렛 4층 431, 432호 (26487)	kw732 @naver.com
포구권역	경주 2005. 9. 9	054-744-8377 F.054-744-8378	경북 경주시 용담로 104번길 37 (황성동), 2층 (38082)	kacegj @kace.or.kr
	구미 1980. 3. 21	054-455-2579 F.054-454-0229	경북 구미시 형곡서로1길 22 (39319)	kace9 @kace.or.kr
	대구 1983. 6. 3	053-742-2076 F.053-742-1493	대구시 수성구 시지로 33 (시지동) (42253)	dgcem @kace.or.kr
	부산 1981. 5. 20	051-558-0012 F.051-557-0388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03 (초량동) 부산교총회관 403호 (48792)	pusanedunet @naver.com
	울산 1973. 12. 21	052-235-9911 F.052-230-0817	울산시 동구 대송3길 22 (화정동), 울산과학대학 평생교육원 109호 (44061)	ulsan9911 @hanmail.net
호남권역	광주 1982. 10. 29	062-522-8301 F.062-522-8303	광주시 북구 금남로 99 (북동), 수창초등학교 내 (61240)	kwcem @hanmail.net
	전주 1985. 7. 6	063-278-5906 F.063-278-7558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46 (금암 동), 4층 (54898)	jjcem85 @kace.or.kr
제주도	제주 1986. 10. 26	064-744-6026 F.064-744-6027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83 1(연동), 현대빌딩 2층 (63125)	checem @hanmail.net

제34차 지역사회교육포럼
부모교육으로 길을 찾다

이 자료의 저자와 발행자의 승낙없이 일부 혹은 전부를
복제하거나 전재하는 것을 저작권법에 의해 금합니다.

- 발 행 일 : 2016년 11월 24일
- 발 행 처 :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KACE)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4길 5-29 지역사회교육회관
- 전 화 : (02)424-8377 / 팩스 : (02)424-8378
- 이 메 일 : kace@kace.or.kr
- 홈페이지 : www.kace.or.kr
- 블 로 그 : EDU&STORY (다음 '에듀앤스토리' 검색)